

# 트럼프 재선 가도 험난... 지지층 이탈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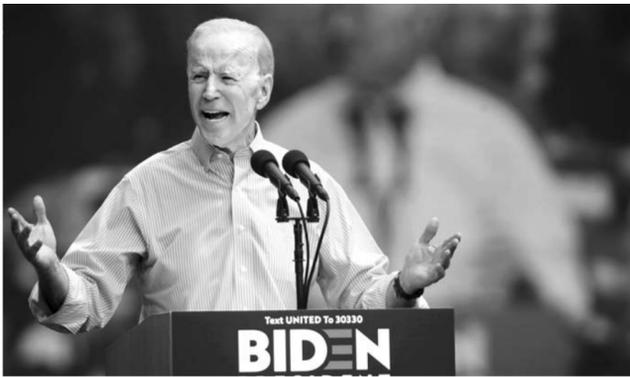
## 정치매체 '더힐' 분석

### 여론조사 '트럼프 거부' 확산 바이든 '블루 월' 수복 주력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상당수가 '다시는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고 돌아서면서 트럼프의 2020년 재선 전망이 험난해지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1일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래 경제호황에 따라 물러 특검보고서 공개에도 취임 이래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양극화한 접근'으로 지지층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하는 등 대선 가도의 장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더힐은 지적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2020년 대선에서 2016년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또 아직은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가 시기상조지만, 더힐은 지난 한 달 사이 4차례 여론조사에서 한결 같이 '트럼프 거부' 추세가 확산하는데 주목했다.



내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선두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도심에서 첫 공식 유세에 나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민주당 표밭이었으나 지난 대선에서 예상외로 트럼프에 승리를 안겨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 주가 다시 민주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나타났다. 폭스뉴스와 퀴니피악대(大) 등 지난 한 달 사이 실시된 4차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시 트럼프를 찍지 않을 것, 또는 찍을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이 50%를 넘어섰지만 '트럼프를 다시 지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38%를 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폭스뉴스 조사의 경우 '아마도 혹은 결정적으로 트럼프를 찍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에 부정적인 답변이 54%를 기록했다. 퀴니피악대 조사에서는 52%가 트럼프

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3%는 트럼프를 다시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3%는 트럼프 지지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6 대선에서 '반(反)가득권' 주자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상당수 유권자가 그로부터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공개된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에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 수행 능력 평가도 긍정 43%, 부정 53.6%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2020 대선에서 또다시 선거인단 제도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결국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4개 주가 대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주말 2020년 대선을 위한 첫 공식 유세를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으며 이른바 민주당 전통 지지지역인 '블루 월' (blue wall,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을 수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역사는 아무리 감추려해도 밖으로 나온다"

### 무라카미 하루키 인터뷰

#### 日정부 과거사 직시 강조

"역사는 아무리 구멍을 파고 감추려고 해도 나올 때가 되면 나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70)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22일자 도쿄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최근작 '기사단장 죽이기'의 주인공 '기사단장'이 '과거로부터의 메시지'라는 설명을 하며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들은 역사는 것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데, 이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역사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집합적인 기억"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인 1949년 태어난 그는 "국가의 논리에 따라 커다란 전쟁이 벌어져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던 생생한 기억이 공기에 남아있던 시대에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전쟁은 지금도 상상이 아니라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들이 굳건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은 연약한 진흙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동안 작품을 통해, 혹은 자신의 입을 통해 일본 사회가 침략의 과거사를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기사단장 죽이기'에서도 난징(南京)대학살 당시 일본의 만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넣었고, 지난 2월 프랑스에서 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기 나라에 좋은 역사만을 젊은 세대에 전하려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웅변했다.

그는 "그동안 내가 소설에서 다뤄왔던 어둠의 세계가 지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든가 인터넷속으로부터 현실 세계로 숨어 나오고 있다"며 "마음속 어둠의 세계에 숨어있는 폭력성을 일상에 느끼고 있다. 과거로부터 그런 것이 살아나오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만 작가 알하르티

### 맨부커상 수상

#### 아랍어 작품으로 최초

올해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이 오만의 여성 작가 조카 알하르티(Jokha alharthi·40)에게 돌아갔다.

알하르티는 이번 수상작인 'Celestial Bodies' (천체)에서 세 자매 이야기를 통해 식민지 시대 이후 오만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줬다.

아랍어로 쓴 작품이 노벨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이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는 처음이라고 가디언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선정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알하르티의 수상 사실을 전하면서 수상작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매력적이며 시적인 통찰력을 통해 과도기 사회 및 이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알하르티의 이번 수상작은 오만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노예를 소유하는 식의 전통적인 사회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겪는 세 자매 이야기를 다룬다. /연합뉴스



美 500여곳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 2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주 의사당 앞에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주 등에서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날 미 전역 500여 곳에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가 열렸다. /연합뉴스

##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암 유발' 소송서 또 패소

### 배심원단, 298억원 배상 판결

존슨앤드존슨(J&J)이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오랜 기간 사용하다 석면과 관련한 희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또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법원의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수십 년간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

를 사용했다가 석면 관련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도나 올슨(66)과 그의 남편에게 최소 2500만 달러(약 298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피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배심원단은 다음 주에 다시 모여 정밀한 배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올슨은 8살 때부터 1984년 결혼할 때까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유했을 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파우더

안에 있는 활석 가루 일부를 들이마셨으며, 현재 폐에 종피종을 앓고 있다고 소송 자료에서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그러나 자사 제품이 발암 물질이 포함된 적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지난 2016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한 여러 건의 암 피해 소송이 시작된 이후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10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미국인 과반 "몇 년 내 이란과 전쟁 가능성"

### 지난해 6월 대비 8%p 상승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몇 년 내 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7-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51%가 향후 몇 년 내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4%포인트다

작년 6월 여론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란과의 전쟁을 예

상하는 응답 비율이 8%포인트 상승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란을 '심각한' 혹은 '임박한'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작년 7월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6%포인트 상승했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58%, 51%가 위협이라고 답했다.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60%가 반대했고, 선제공격 지지자는 12%에 불과했다.

다만, 이란이 공격한다면 미군이 보복해야 한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 이란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로 많았다. /연합뉴스

## '시신을 퇴비로'...美워싱턴주 내년 5월 관련법 시행

'사람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시신을 퇴비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 (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종전에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워싱턴주 법원을 통과했으며,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워싱턴주가 최후다.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나무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 경,공매 컨설팅

###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46.4㎡(1587평) **매매가 : 63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남구 봉선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405㎡(122.51평) 건물 : 551.94㎡(166.96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8억5천** 현 교회이용중, 상가 다가구 이용가능.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좋은,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병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양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공장 ▶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만매각.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 ★공장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 ★임야 ▶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